

정부 중재로 '24년도 정비요금 3.5% 인상 합의 극적 타결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2월 18(월) 오후 개최된 제20차 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*에서 '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'23년 대비 3.5% 인상하기로 보험-정비 업계 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.

*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정비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보험업계 5인, 정비업계 5인, 공익대표 5인 등 15인으로 구성

○ 이번 협의회에서 업계 간 논의가 장시간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상정하여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, 표결에 따른 갈등 심화를 피하고자 두 업계에서 협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.

□ 당초 자동차보험 지출의 약 18%를 차지하는 정비요금 인상폭이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었으나,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인하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“정비공임 협의는 수십 년간 보험-정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올해도 업계 간 입장 차이*가 컸으나, 수차례에 걸친 국토부 및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중재와 두 업계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합의될 수 있었다”고 평가하였다.

* (정비) 최초 6.6% → 최종 4.0% 인상안 제시, (보험) 최초 동결 → 최종 1.7% 인상안 제시

□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“두 업계의 대승적인 상생의지로 정비공임이 합의되었다”면서,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“보험료 지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하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	책임자	과 장	임월시 (044-201-3855)
		담당자	팀 장	신영우 (044-201-4760)
		담당자	사무관	이 향 (044-201-4761)
		담당자	주무관	박초롱 (044-201-4870)

